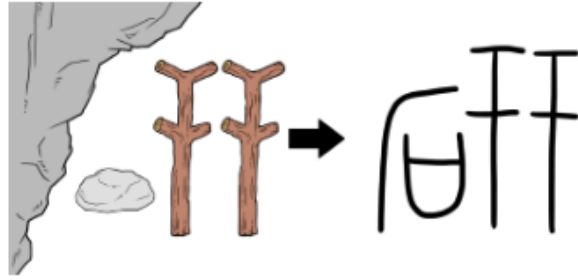


4(2)
-
141

회의문자 ①



研

갈 연:

研자는 '갈다', '문지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研자는 石(돌 석)자와 开(평평할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开자는 나뭇가지가 똑같은 크기로 자라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평평하다'라는 뜻이 있다. 研자는 이렇게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开자에 石자를 더한 것으로 "돌을 갈아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研자는 '(돌을)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돌도 다듬어야 좋은 석재(石材)가 되듯이 학문도 갈고닦아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깊이 연구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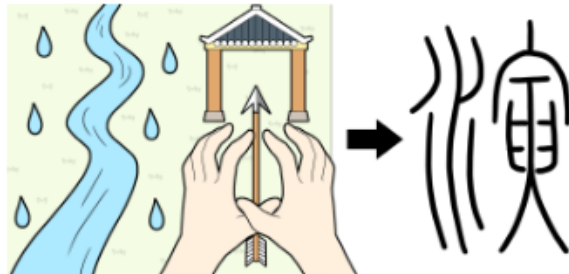
소전

研

해서

4(2)
-
142

형성문자 ①



演

펼 연:

演자는 '멀리 흐르다'나 '퍼다', '넓게 미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演자는 水(물 수)자와 寅(셋째 지지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寅자는 '셋째 지지'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 → 연'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演자는 물이 멀리 흐르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넓게 미치다'나 '스며들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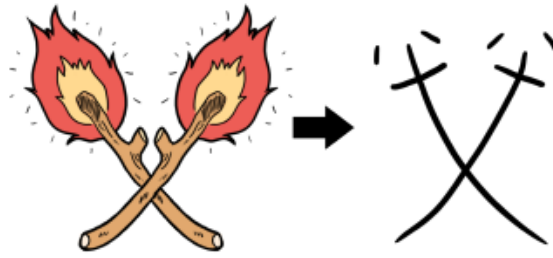
소전

演

해서

4(2)
-
143

회의문자①



榮

영화 영

榮자는 '영예'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榮자는 木(나무 목)자와 冫(덮을 먹)자,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榮자에는 두 개의 햇불만이 𤇀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햇불을 그려 '밝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木자와 冫자가 더해지면서 햇불의 재질과 불빛이 온몸을 감싼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다만 지금의 榮자는 단순히 '밝다'라는 뜻보다는 사람의 '영예'나 '영예'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𤇀

금문

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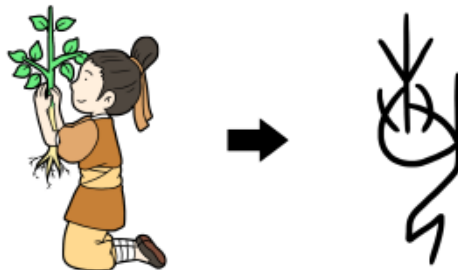
소전

榮

해서

4(2)
-
144

상형문자①



藝

재주 예:

藝자는 '재주'나 '기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藝자는 艹(풀 초)자와 執(재주 예)자, 云(이를 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藝자는 執자가 확장된 글자이다. 執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는 執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土(흙 토)자가 더해지면서 "정원을 가꾸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소전에서는 艹자가 더해지고 土자는 云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藝자가 되었다. 나뭇가지를 자르고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그렸던 藝자는 후에 '재주'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執

갑골문

藝

금문

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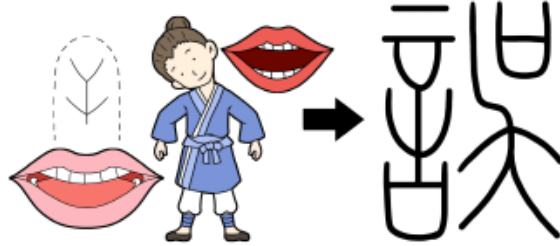
소전

藝

해서

4(2)
-
145

회의문자①



誤

그르칠
오:

誤자는 '그르치다'나 '잘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誤자는 言(말씀 언)자와 誤(나라이름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誤자는 머리가 기울어진 사람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진 모습을 그린 誤자에 言자가 결합한 誤자는 '말이 기울다' 즉, '말이 잘못됐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지금의 誤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태도가 잘못됐음을 뜻하기도 한다.

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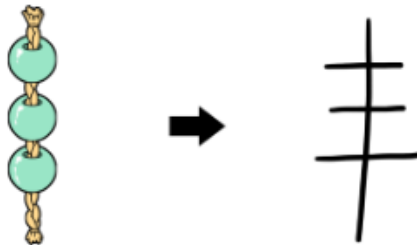
소전

誤

해서

4(2)
-
146

상형문자①



玉

구슬 옥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슬이란 호박이나 옥을 뜻했다. 옛사람들은 옥도 가공해야 장신구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구슬을 뜻하는 玉자는 가공된 여러 개의 보석을 끈으로 연결해놓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갑골문에 나온 玉자를 보면 지금의 王(임금 왕)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王자와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되어 점을 찍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玉자가 부수 역할을 할 때는 여전히 옛 글자인 王자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珍(보배 진)자나 班(나눌 반)자처럼 王자가 부수로 쓰여 있다 할지라도 모두 '구슬'로 해석해야 한다.

玉

갑골문

王

금문

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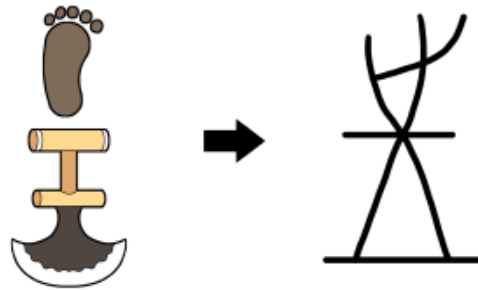
소전

玉

해서

4(2)
-
147

회의문자①



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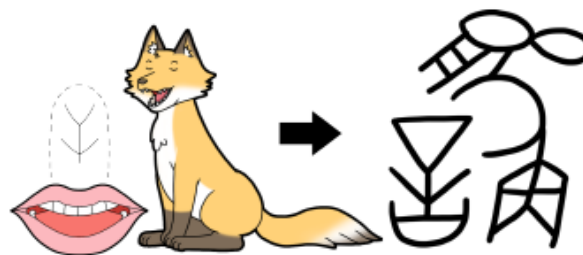
갈 왕:

往자는 '가다'나 '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往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主(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王(임금 왕)자 위로 止(발 지)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王자는 발음역할만을 한다. 이것은 '가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彳자가 더해지면서 '길을 가다'라는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전과 해서에서는 止자와 王자가 主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往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48

회의문자①



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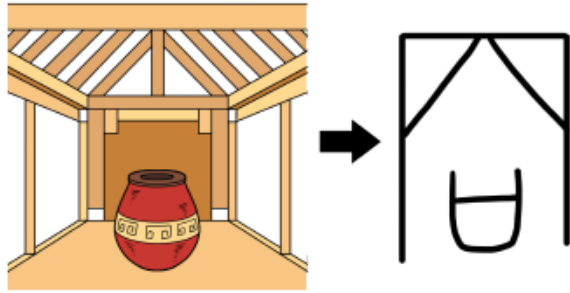
노래 요

謠자는 '노래'나 '풍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謠자는 言(말씀 언)자와 猋(질그릇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謠자는 주로 '노래'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고대에는 '풍문'이나 '소문'을 뜻했었다.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서동요(西東謠)를 떠올려 보면 謠자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謠자의 금문을 보면 여우와 言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여우가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부터 여우는 교활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謠자는 '교활한 여우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풍문'이나 '소문'을 뜻했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여우를 猋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謠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4(2)
-
149

회의문자 ①



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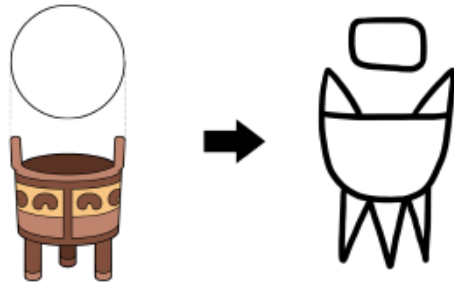
얼굴 용

容자는 '얼굴'이나 '용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容자는 宀(집 면)자와 谷(골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谷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우선 갑골문에 나온 容자를 보면 內(안 내)자에 항아리가 하나 冂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방안에 항아리가 자리 잡은 모습을 통해 '보관하다'라는 뜻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사람의 얼굴과도 같아 후에 사람의 '얼굴'이나 '용모'를 뜻하게 되었다. 요즘 중국에서 囧(빛날 경)자를 '난감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50

회의문자 ①



圓

둥글 원

圓자는 '둥글다'나 '원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圓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員(수효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員자의 갑골문을 보면 鼎(술 정)자 위에 동그라미가 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둥근 술을 응용해 '둥글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員자는 본래 '둥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員자가 '수효'나 '인원'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口자를 더한 圓자가 '둥글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